

제 146호 <편집 코멘트> 고맙습니다

전자주간지 <새시대 교수법>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일년 정도 하게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. 하지만 어느덧 만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. 첫해에는 구독자가 4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디다만 삼 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. 몇몇 대학에서는 모든 교수님을 구독자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고, 단과 대학별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외에 "일차 구독자"로부터 <새시대 교수법>을 재발송 받기 때문에 구독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"이차 구독자"들도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. 아예 모든 멤버들에게 재발송한다는 학회와 기업 연수원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런소식은 제게 <새시대 교수법>을 삼 년씩이나 연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

한국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맨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접합니다. 하지만 <새시대 교수법> 구독자 수의 증가는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열악한 환경에서도 좀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려는 한국 교육자들의 노력과 마음을 잘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한국을 방문할 적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 곳에서 느끼고 보게 됩니다. 한국에 큰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.

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호튼에서 조벽 드립니다.

2001. 12. 20

추신: 이번 호는 2001년도의 마지막 호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두 주간 쉬고 2002년도의 첫 호는 1월 11일에 발송하겠습니다.

© 조벽, 2001